

"서기장" "총비서"는 프로파간다 용어인가?

○ ○

조선시대 왕의 1인칭은 "과인"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임. 이는 여러분과 국가를 이끌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풀어 해설할 수 있음. 비슷한 뜻으로 왕은 곡식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게 미곡이었나 그림.

사회주의 국가의 수장은 대체로 "서기장" "총비서"라고 함. 서방권에서는 "사무 총장" 정도로의 용어로 표현하는 듯싶더라. 그런데 이런 용어로 최고 지도자의 직함을 표현하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과인" 과 같은 취지라는 주장이 있음.

이게 무슨 주장이냐? 사회주의 국가가 다음과 같은 선동을 한다는 주장임.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인민을 보조하고 비서하는 비서와 서기의 역할을 하면 된다" 라는 부분을, 지도자의 직함을 통해 선동한다는 주장임.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니까 정치인들은 비서 역할이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직함이 "총비서"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인가?

정말 흥미로워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사실과는 거리가 좀 있었음. 소련의 사례를 보면, 레닌이 있던 정치국이 가장 서열이 높았음. 그리고 그 당시의 서기국은 진짜 행정 사무를 보는 실무기관에 가까웠음.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는 말임. 그런데 서기국이 정치국보다 오히려 높은 서열의 기관이 된 것은 무어냐? 권력을 승계한 스탈린이 하필 그 때 서기국의 서기장이었기 때문임!!!

이를 좀 안 맞는 비유로 정리해 보겠음.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는데 오락부장을 하던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음. 근데 오락부장 이 양반이 대외적 직함을 오락부장을 계속 쓰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오락부장"이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변화해버린 것임.

따라서, "인민이 사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비서나 하면 된다" 라는 이유로 "총비서" 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거짓이었음. 하지만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정당이 이전과 같은 서기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걸 보면, "과인"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봄.